

전남도청 최후의 항전 지휘 '5·18 사형수'

평화당 광주시장 후보 영입 추진...김종배는 누구?

DJ 적극 권유 정치권 입문 광주정신 이슈 부각될 듯

민주평화당이 광주시장 후보로 영입을 추진중인 김종배 전 국회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주목된다. 아직은 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긴 하지만, 주수지까지 광주로 이미 옮겨놓은 상황인 만큼 출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평화당 안팎의 판단이다. 따라서 김 전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텃밭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평화당 간 자존심을 건 일전이 예상된다.

'5·18 사형수'로 불리는 김 전 의원은 제15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총선 당시 자신은 전국구 국회의원 15번을 주어 국회에 입문시켰다.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5·18 민주유공자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정도로 5·18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평가다. 그는 80년 5·18 당시 '시민군 총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다. '도주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한 뒤 스스로 도청 앞 분수대를 걸어나와 계엄군에 붙잡혔다. 5·18 주동자로 낙인찍힌 그는 이후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5·18 사형수'라는 이름을 얻었다.

김 전 의원은 제15대 국회의원 이후 사실상 정치계를 떠나 있었던 만큼 20~30대 사이에선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평화당은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민주화 성지인 광주의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이슈를 부각시킬 경우 민주당과 전선을 형성해 한판 승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경력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카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삶이 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경력에 맞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5·18 사형수' 대 '전두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선거 프레임은 짙을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평화당은 광주와 전남·전북 국회의원을 총동원, 광주에 올린 해 평화당의 바람을 광주에서 전남·전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평화당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면서 "선거 출마자격인 주소 이전은 기한 내 마쳤지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전두환 정부 근무 경력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가 전두환 밑에 있을 당시는 전국이 전두환 퇴진을 촉구하는 민감한 시기였다.

■ 김종배 행정 실린 고은 시 '만인보' 27권

고은 시인의 '만인보' 27권에는 5·18 당시와 그 이후 김종배 전 국회의원의 행적을 소개한 시가 실려있다. 실명 '김종배'를 제목으로 한 시를 소개한다.

나는 스물여섯 살 사내여요 광주만중학생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벌수 없이 어귀지게 이끌었어요 죽어간 시민 죽어간 학생 장래위원장이었어요 아니 온건과 수습위원회의 맞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전남도청 시민군 무기반납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리고 물고문이었다 손톱고문이었다 그리고 몽둥이질이었다 그리고 전기고문이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너 김대중의 하수인이야 너 김대중의 지시로 광주 폭도를 이끌었다 다 시인하러 그리고 또 원산폭격이었다 그리고 또 물고문이었다 고춧가루 뿌려졌다 너 정동년과 내통했다 다 불어라 그리고 발톱고문이었다 그리고 전기고문이었다
도청 최후의 새벽 네 시 쓰러진 밧들의 주검과 주검 사이 나는 마지막까지 벌수 없이 총 들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덮쳐 나는 체포되었어요 광주공체 그 멋진 열흘이 끝났 어요	또 5.18 행동대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1심 사형 2심 무기 복고도 김대중도 정동년도 모르는데 벌수 없이 그들의 하수인이 되고 말 았다
상무대 계엄수사본부 너 복고의 앞잡이다 다 털어나라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고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고 새

정치국민회의 부총무, 원내부총무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민생실천시민연대 고문을 맡고 있다./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김 전 의원(왼쪽 네 번째)이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돼 있던 윤상원 열사 묘지 앞에서 시민군 동지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왼쪽). 이들과 함께 옛 전남도청을 방문한 당시 기념사진(가운데). 또 다른 5·18 사형수였던 정동년 전 남구청장과 옛 상무대 영창을 찾은 모습.

평화당 조배숙 대표 취임 100일 "호남서 강력한 경쟁구도 만들 것"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뒷받침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7일 다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의 지지도가 높지만, 그 다음이 우리"라며 "호남에서 강력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는 13일 전북 전주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소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광주 서구 갑은 경선 예정이고, 영암·신안·무안은

후보가 확정됐다"며 "이들 두 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대표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여부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지역 단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별)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 구청장 5곳 후보 확정

동구 임택, 서구 서대석 남구 김병내, 북구 문인 광산구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5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선정하는 등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가 본격화한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광주 5개 구청장 선거구 중 경선을 치른 4개 선거구의 구청장 후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구청장 후보에는 임택 전 광주시의원, 서구청장 후보 서대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북구청장 후보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산구청장 후보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다. 앞서 남구청장 후보에는 김병내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됐다. 광주 5개 구청장 후보경선을 끝으로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특히 현역 구청장이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한 동구청장과 서구청장 선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 이들 현역 구청장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여부가 이번 구청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구의 경우 평화당은 김성환 현 구청장이 후보로 나서며, 바른미래당은 김영우 전 광주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이 임택 시 의원을 내세우면 서 동구청장 선거는 관료 출신 현역 구

청장과 광주시의원 출신인 임택·김영우 후보간 3자 대결로 치러진다.

무엇보다도 이번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호남을 주요 정치기반으로 하는 대표 정당이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역대 '호남정치 1번지' 역할을 해온 동구의 표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여부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서구청장 선거 세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당이 서대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을 후보로 선정했지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우진 구청장 후보도 거세다. 여기에 평화당의 이성일 후보도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남구는 아직 야권 후보를 확정하지 못해 김병내 후보가 독주 체미를 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귀복 전 전남대 총동창회 상임이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지만 완주 여부는 미지수다.

또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평화당 간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다.

북구청장 선거에는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평화당에서는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광산구는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평화당 이정현 전 광주시의원고 승부를 펼친다.

한편 정의당과 민중당은 구청장 후보는 내지 않고 광역의원고 기초의원에 주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모에 애를 먹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단일화 효과 있나 없나

민주 구청장 후보 경선 북구 단일화 불발 탈락 광산구 성공했지만 패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후보들 간 단일화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는 북구청장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들이 막판까지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채 경선에 참여했고, 광산구청장 경선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도전을 냈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 같은 '단일화 불발'과 '단일화 성공' 사례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북구청장 경선의 경우 재선 광주시의원이자 고교 동문인 문상필, 오오섭 후보가 단일화 실패로 둘로 쪼개지면서 결국 표심도 둘로 갈렸다. 권리당원을 상

대로 한 ARS 투표에서 조 후보는 33.1%, 문 후보는 28.2%, 시민 여론(국민경선)에서는 조 후보가 35.3%, 문 후보가 31.2%를 나눠가졌다. 이 두 후보는 단일화 직전까지 갔으나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함' 주장이 불거지면서 무산됐고, 경선에서 끝내 두 명의 후보 모두 선택받지 못했다.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경선 주자 2명에 컷오프된 2명까지 가세, 김영록·윤봉근·임한필·장성수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4자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지역 평가 한 관계자는 "북구의 경우 지지기반이 비슷한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광산구는 너무 뒤늦은 단일화 합의와 정치 성향이 다른 4명이 급조된 형태로 모여 파급력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무안출발 해외여행

"소중하고 행복한 여행은 매일 무안공항에 있어"

동남아		일본		러시아		중국	
<p>449,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 현지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3박 5일 토요일, 일요일 4박 6일 #코끼리레저링 #발마사지 #다이내믹 여행지</p>	<p>69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 현지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투본강투어 #후에전통카</p>	<p>699,000원~ 오사카/교토/나라 3일, 4일 현지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금요일 2박 3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 #사승공원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p>	<p>1,599,000원~ 블라디보스톡 5일, 6일 현지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3박 5일 7/26, 8/2, 8/9 4박 6일 7/29, 8/5 #가장 가까운 유럽 #유럽풍의 노란건물들</p>	<p>329,000원~ 상해/항주/주가가 4일, 5일 현지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하이경#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p>	<p>1,5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 5일 현지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3박 5일 7/28, 8/6, 8/10, 8/14, 8/18 4박 6일 8/1 #별이 쏟아지는 몽골 밤하늘 #푸른초원#게르숙박</p>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행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인,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선택관광에 참여비용이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의 미참여 시에는 해당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항공권] 또는 항공편 또는 항공편에 포함된 상품/서비스/시설/요금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관/과금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에 담당합니다.